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비의 왕 헨더슨』에 나타난
헨더슨의 자아성찰과
인간성 회복의 과정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보 라

2017年 8月

『비의 왕 헨더슨』에 나타난 헨더슨의
자아성찰과 인간성 회복의 과정

指導教授 卞 鐘 民

金 보 라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 年 6 月

金보라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7年 8月

<국문초록>

『비의 왕 헨더슨』에 나타난 헨더슨의 자아성찰과 인간성 회복의 과정

金 보 라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指導教授 卞 鐘 民

유대계 미국 작가인 솔 벨로우(Saul Bellow, 1915-2005)는 주인공들에게 부조리한 현실에서 존재의 불안이라는 문제를 던지고 그들이 삶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한다. 그중 『비의 왕 헨더슨』(*Henderson the Rain King*, 1959)의 주인공 헨더슨(Henderson)은 벨로우의 일반적인 주인공들과 달리 인간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헨더슨은 현대인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가 겪는 다양한 고통을 현대사회가 아닌 미지의 세계인 아프리카의 탐험을 통해 해결한다. 본 논문은 헨더슨의 정신적 여정인 아프리카 탐험을 통해 진정한 자아성찰과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인간성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헨더슨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백만장자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실존의 문제로 고통받는다. 그의 고통은 ‘나는 원한다’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아의 외침과 ‘생존자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 여행지인 아프리카의 탐험을 시작해 그곳에서 두 부족을 차례로 만나 삶의 양면성을 경험한다. 그는 평화롭고 온순한 아르네위족(Arnewi)의 윌라테일(Willatiale) 여왕에게 ‘그룬 투 몰라니(Grun-tu-malani)’라는 인간 생존의 욕구를 확인한다. 하지만 갈등이 없는 그들의 삶은 현실과 괴리감이 존재하며 삶에 대한 긍정만으로는 헨더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의 정신적인 여정은 투쟁적인 삶의 의지를 가진 와리리족(Wariri)에서 계속된다. 운명을 개척하는 와리리족의 기우제를 통해 헨더슨은 인간 생존의 투쟁의지와 성취감을 획득한다. 헨더슨은 와리리족의 다푸(Dahfu) 왕에게 가르침을 받고 정신적 재생을 이루지만, 다푸 왕은 부족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헨더슨은 다푸 왕의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고귀함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죽음에 대한 두

려움을 극복한다. 그가 이룩한 참된 인간성 회복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애를 통해 현실을 수용하게 된다. 헨더슨은 그의 내면의 성장 과정인 아프리카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과 자녀들이 있는 그의 사회로 회귀한다.

벨로우는 헨더슨의 여정을 통해 인간은 그들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사회와의 타협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한다. 결국 바람직한 인간성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자신의 발전과 변화를 통해 이뤄지기에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이미 완성된 ‘존재하는 자(Being)’가 아닌 ‘변화하는 자(Becoming)’로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본 논문은 201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II. 실존의 불안과 저항	6
III. 자아성찰을 위한 내면의 여정	13
1. 삶의 욕구와 긍정적 인식: 아르네위족의 경험	15
2. 삶의 투쟁의지와 성취 욕구: 와리리족의 경험	23
IV. 정신적 재생과 인간성 회복	38
V. 결론	43
참 고 문 헌	46
Abstract	49

I. 서론

두 번의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이라는 불안과 혼돈의 시기를 겪으며 작가들은 지성인이자 예술가로서 이성과 불합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의 딜레마에 봉착한다. 이 시기에 탄생한 모더니즘(Modernism)의 영향으로 그들은 인간존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현대사회 안에서 낙오되고 소외된 인물에 집중한다. 모더니즘 작가들은 인간을 부조리에서 탈출 시킬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이 아닌 고급예술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고급예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더니즘 문학은 난해한 시간의 개념과 플롯의 복잡함, 언어적 실험으로 인해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인간을 비관과 허무의 세계로 파고들게 만들어 인간존재를 부정하도록 조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소외를 부추기는 모더니즘에 대항하여,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고 긍정하는 휴머니즘(Humanism)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 중심에 유대계 미국 작가인 솔 벨로우(Saul Bellow, 1915-2005)가 있다.

벨로우는 당시 시대상황을 증언한 첫 번째 소설 『허공에 매달린 사나이』(*Dangling Man*, 1944)로 미국 문단의 호평을 받으며 유망작가로 출발한다. 그의 작품세계는 자신의 자화상과 현대사회의 시대상이 반영된 철학적이고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독보적인 문학성을 담아낸다. 벨로우가 내세우는 선하고 긍정적인 인간상은 유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 민족,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은 존재 자체로 위대함과 고귀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긍정과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인간상을 작품에 투영한다. 그의 주인공들은 생활 속에서 인간 생존을 긍정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믿고 험난한 고난이 닥쳐와도 인간의 가능성과 위엄을 지키는 태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벨로우 작품의 본질은 ‘인간애(humanity)’에 있으며 인간애와 연민은 그의 소설로부터 발산된다고 할 수 있다.¹⁾ 벨로우가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스스로 밝힌 소설문학의 본질은 이와 연관이 깊다.

1) John Clayton, *Saul Bellow: In Defense of Man* (Bloomington&London: Indiana UP, 1979), p. 3.

소설을 쓰는데 수년간을 보낸 사람은 누구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소설은 서사시나 시적 드라마의 기념물과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소설은 영혼이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현대의 오두막이어야 한다. 소설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몇 안되는 진정한 인상과 거짓된 것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룬다. 그것은 모든 인간 존재마다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²⁾

벨로우는 소설문학 본래의 목적이 휴머니즘에 있으며 소설을 통해 무질서와 부조리라는 사회적 제약에서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을 옹호한다. 그의 소설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실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작가는 독자로서 하여금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써야 함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기 상실의 시대에 작가는 교사와 심리치료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성 회복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됨을 강조한다.

벨로우는 주인공들에게 자아탐구와 인간성 회복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던져 사회 속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그의 다섯 번째 소설인 『비의 왕 헨더슨』(*Henderson The Rain King*, 1959)은 인간의 삶에 대한 긍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난 작품이다. 주인공 헨더슨(Eugene Henderson)은 현대사회에서 고립과 소외로 인한 실존적 딜레마로 고통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헨더슨은 그동안 벨로우의 수동적이던 주인공들과는 다르게 삶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의 진지하고 무거운 사회적 분위기에 지친 벨로우는 고통의 상황을 유머로 승화하는 것은 인간의 위대한 표현방식이라 믿고, 헨더슨을 자발적으로 자아를 찾아 나서는 ‘슈레미엘(Schlemiel)’³⁾ 즉, ‘희비극적 인물’의 표본으로 창조한다. 하지만 벨로우는 헨더슨을 단지 희극적인 성향을 강조하기 위한 인물로서 중점을 둔 것이 아닌 현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영웅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⁴⁾ 따라서 헨더슨의 희극성은 참된 자

2) “Saul Bellow-Nobel Lecture.” The Official Web Site of the Nobel Prize, accessed April 1, 2017, http://nobelprize.org/nobel_prizes/literature/laureates/1976/bellow-lecture.html.

3) 선이 악에 대해 승리하리라는 낙관적 신념을 바탕으로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바보같은 행동을 하는 소유자로, 그 기원을 유대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안무승, 『술 벨로우 소설 연구』(서울: 푸른사상사, 2004), p. 33.)

4) Richard Pearce, *The Ambiguous Assault Henderson and Herzog. Saul Bellow: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5), p. 73.

아와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그의 진중한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사용된다고 여겨진다.

헨더슨의 성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피어스(Richard Pearce)가 규정하듯, 『비의 왕 헨더슨』에서 벨로우의 업적은 민감하고 격렬하며, 지적이며 부드럽고 사색적이고 충동적인 규정되지 않은 영웅을 창조한 것이다.⁵⁾ 헨더슨은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White Anglo-Saxon Protestant: WASP)이지만 자기 주변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안의식으로 가득 찬 인물이다. 그는 사회적, 개인적 제한 속에서 정신적 자유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이상적인 인간성을 획득하길 바라며 아프리카 오지로의 여정을 통해 자아 탐구를 시작한다. 벨로우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도시성(urbanism)의 성향을 뚜렷하게 보이는 작가이지만⁶⁾ 헨더슨의 자아탐구는 그가 속한 안정된 세계가 아닌 미지의 세계인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헨더슨은 고상한 자질을 추구하는 부조리한 탐색자 혹은 자신과 사회를 고귀하게 바꾸려 노력하는 진정한 부르주아로 묘사된다.⁷⁾

벨로우는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부조리한 현실을 탈피해서 올바른 자아를 추구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현대인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헨더슨 역시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출발하여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인간성을 회복하여 다시 사회로 회귀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벨로우는 자기중심적인 인물인 헨더슨을 아프리카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넘치는 인간애를 간직한 인물로 탈바꿈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비의 왕 헨더슨』에 관한 비평은 주로 헨더슨의 인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카진(Alfred Kazin)은 『비의 왕 헨더슨』이 벨로우의 작품 중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며 인생의 의미를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주장한다.⁸⁾ 젤러웨이(David Galloway)는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희망과 인간애를 잃지 않는 작

5) Pearce, p. 79.

6) David Galloway, *The Absurd Hero in American Fiction*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81), p. 48.

7) Leslie Fiedler, *Waiting for the End* (New York: Madison Books, 1964), p. 98.

8) Alfred Kazin, *Bright Book of lif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2), p. 32.

품이라고 분석한다.⁹⁾ 로드리게스(Eusebio L. Rodrigues)는 이 작품이 인간성 탐구를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설명한다.¹⁰⁾ 말린(Irving Malin)은 또한 고통 속에서도 현실의 삶을 긍정하는 작품이라 평한다.¹¹⁾

『비의 왕 헨더슨』에 대한 국내 연구 역시 주인공 헨더슨의 인간성 탐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²⁾ 벨로우의 작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안무승은 『비의 왕 헨더슨』은 벨로우의 작품 중 가장 환상적이고 희극적이라고 평하며, 바람직한 인간의 생존조건은 발전과 자기희생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¹³⁾ 조일현은 이 소설의 희극적 세계인식을 미국문학의 한 전통인 로맨스적 서술방법과 결합한 작품이라고 분석했으며,¹⁴⁾ 최말순은 헨더슨이 현실에서의 좁은 자기인식에서 결국 자아 및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인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설명한다.¹⁵⁾

『비의 왕 헨더슨』에 대한 여러 시각의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헨더슨의 여정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이 연구의 중심 주제를 이룬다. 이런 비평적 흐름은 주인공 헨더슨이 참된 인간성을 갈구하고 고뇌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자아 탐구의 여정을 떠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자아성찰과 인간성 회복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들은 실존의 불안에 두려워하면서도 자아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따라서 벨로우는 주인공 헨더슨을 통해 정신적 재생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문제를 전 인류의 본편적인 문제로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헨더슨이 진정한 자아를 찾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내면에서 멈

9) Galloway, p. 16.

10) Eusebio L. Rodrigues, *Quest for the Human: An Exploration of Saul Bellow's Fiction* (Lewisburg: Bucknell UP, 1981), p. 9.

11) Irving Malin, *Saul Bellow's Fiction*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P, 1969), pp. 44-45.

12) Riss에서 『비의 왕 헨더슨』, 『우왕 헨더슨』 또는 *Henderson the Rain King*으로 검색결과 2000년 이후 국내 연구는 총 24편으로 나타난다. 연구내용은 헨더슨의 심리적 분석과 철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며, 그 외에도 헨더슨의 희극성 연구,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및 벨로우의 다른 작품과 비교분석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13) 안무승, 「희극적 모험을 통한 인간성의 발전-『우왕 헨더슨』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문집』 31 (2001): 73-88.

14) 조일현, 「『비의 왕 헨더슨』: 죽음과 재생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강원영문학회』 19.2 (2000): 165.

15) 최말순, 「『우왕 헨더슨』에서 인간성 회복」, 『신영어영문학』 31 (2005): 117.

추지 않고 들려오는 자아 갈망의 외침에 고통받는 주인공의 갈등 양상과 실존의 불안에 대한 저항에 맞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여행에서 방문한 아르네위(Arnewi)족의 윌라테일(Willatale) 여왕에게 “그룬 투 몰라니(Grun-tu-malani)” (79)라는 인간 생존의 욕구에 대한 깨달음과 삶의 긍정적 인식을 경험하는 과정과, 와리리(Wariri)족의 다푸(Dahfu) 왕에게 인간 생존의 투쟁의지와 성취 욕구에 대해 경험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헨더슨의 여행을 통해 재생된 인간애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아와 인간성 회복을 이루게 된 결과와 이타적인 마음을 확대하고자 다시 문명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실존의 불안과 저항

벨로우는 그 자신만의 휴머니즘을 헨더슨에게 투영시키고 그를 부조리한 영웅으로 내세운다. 헨더슨은 인간 존재의 긍정을 믿고 자신을 둘러싼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면서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부재로 고통받으며 자신을 사회와 고립시킨다. 그는 문명사회에서 인간 소외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 시도하지만 거듭되는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인간성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난다. 헨더슨이 아프리카로 떠난 동기는 크게 둘로 나뉘 볼 수 있다. 하나는 그의 멈추지 않고 들려오는 자아의 외침에서 비롯된 내부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가족과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외부의 문제이다.

벨로우가 다수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 속 주인공 중 가장 자신과 유사한 인물이 헨더슨이라고 밝힌바와 같이 그는 유대인이 아닌 헨더슨에게 전형적인 유대인의 특성을 부여한다. 이에 걸맞게 헨더슨은 유대인만의 독특한 유머와 위트를 지니고 있으며 외모 또한 백인 앵글로 색슨과 유대인의 특징이 융합된 모습으로 묘사된다.¹⁶⁾ 6피트 4인치의 키에 몸무게 230파운드의 거구로 백만장자이지만 여전히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55세의 중년 남성인 헨더슨은 현실의 부조리에 괴로워하며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난폭하고 괴팍하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한다. 헨더슨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압박해오며 한계의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한다.

뒤죽 박죽 정신없이 쏟아져 들어온—부모님과 아내들, 아는 여자들, 아이들, 농장, 가축들, 내 버릇들, 돈, 음악 수업, 술주정, 편견, 잔인성, 이빨, 얼굴, 영혼! “휘이, 휘이, 물렸거라, 썩 꺼져버려, 날 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날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모두가 다 나의 일부분인데. 다 내 것이다. 그것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내 안에 첩첩이 쌓인다. 결국, 혼돈에 빠져버리고 만다.¹⁷⁾

16) Eric Strand, “Postwar Revisions of Cultural Anthropology and Jewish American Identity in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Lighting Out for the Global Territory* 80.1 (2013): 304.

17) Saul Bellow, *Henderson the Rain King* (New York: Penguin Books, 1976), p. 1. 이후의 본문 인용은 이 책에 의하며, 쪽수를 인용문 뒤의 괄호 속에 숫자로 표시한다.

헨더슨은 주위의 사람들, 소유물, 육체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단절되고 소외된 삶을 산다. 사실 그는 WASP로서 가정의 배경과 사회적 지위는 남 부러울 것이 없다. 그의 이름인 유진 헨더슨(Eugene Henderson)의 유진(Eugene)은 희랍어로 ‘호화롭게 태어났다’의 뜻으로, 그 이름이 상징하듯 물질적으로 풍족하며, 명문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증조부는 국무장관을 지냈고, 큰할아버지는 주영대사와 주불대사를, 아버지는 유명한 학자이며, 저명인사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와 헨리 아담스(Henry Adams)의 친구였다. 헨더슨의 형인 딕(Dick)은 젊었을 때 강에서 익사하였고, 여동생 역시 어렸을 때 죽었기에 3백만 달러의 유산은 홀로 남은 헨더슨에게 상속되었지만 그것으로 그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육체적 힘, 교육 및 돈은 그를 실존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¹⁸⁾ 헨더슨이 처한 이런 상황은 빈약한 정신은 빈약한 육체만큼 위험하며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불안을 치유해 주지 못함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헨더슨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아 갈망의 외침’인 “나는 원한다” (22)라는 멈추지 않는 내면의 소리에 괴로운 나날을 보낸다. 그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자아의 외침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한 고통이 외면으로 표출된 것으로 헨더슨은 이 실체 없는 소리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 받는다.

앞서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난 하고 싶다,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하고 떠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날 방해한다고 말했다 . . . 목소리는 오직 한마디만 말했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뭐가 하고 싶은데?”

하지만 목소리가 할 줄 아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는지 나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말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22)

헨더슨은 돈과 명예를 둘 다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로우스려운(Bellovian) 마음-말하자면, 열망으로 고통 받는 마음이 존재하며 그의 내면의 소리는 혼란으로 인한 심장의 파동이 걸로 드러난 것이다.¹⁹⁾ 그는 자신을 괴롭히며 계속해

18) Sukhbir Singh, “The Political Satire in *Henderson the Rain King*,” *Saul Bellow Journal* 18.2 (2002): 26.

서 들려오는 자아의 외침을 잠재우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육체적 고통을 통해 잠자는 영혼을 깨우려 시도한다.

헨더슨은 평소 “진리는 얻어맞을 때 찾아온다” (63)고 믿고, 자신을 육체적으로 괴롭히면서 혼돈으로 가득 찬 영혼을 정화하려 노력한다. 그는 육체적 저항의 한 방법으로 2차 세계대전에 자발적으로 참전한다. 벨로우는 헨더슨을 가장 치열했던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전투에 배치시킴으로써, 전후의 절망과 혼란을 그대로 부여받은 인물로 묘사한다. 하지만 헨더슨은 전쟁이라는 육체적 고통으로 그가 그토록 원하던 인생의 진리를 얻지 못한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 가문 대대로 내려온 아름다운 건축양식의 대저택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농장은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전쟁과 그 이후의 일반적인 삶에 대한 헨더슨의 견해를 가장 잘 나타낸다.²⁰⁾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유대인 앞에서 돼지를 키우겠다고 결심하며, 무례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의 이웃은 돼지 오물 냄새로 그에게 항의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경험한 절망감을 그들에게 거침없이 대항하는 것으로 표출한다. 처음에 그는 돼지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위로받지만 점차 자신은 돼지보다 못한 존재라 생각하고 절망한다.

돼지는 잡아서 먹을 수도 있었다. 돼지는 햄과 장갑, 젤라틴과 비료가 되었다. 나는 무얼 했지? 생각해 보니 난 일종의 기념비가 된 것 같다. 나 같은 사람은 기념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때 빠고 광내서 값비싼 옷을 입힌 기념비 말이다.
(21-22)

헨더슨은 탐욕과 육체적 욕구로 상징되는 돼지를 기르면서 자아의 외침인 “나는 원한다” (10)를 충족하려 하지만 그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더 증폭된다. 방목한 돼지들이 항상 무언가를 원하며 울어대는 것처럼 자아의 외침은 ‘원한다’ 라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를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그의 사회를 부패시킨다.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릴리(Lily)와 결혼이나 돼지 사육에서 얻으려 한 물질적인 충족

19) A. Kirsch, “On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59.19 (2012): 54.

20) Thomas Rhea, “Metaphysics of Fear in Saul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Saul Bellow Journal* 22.1-2 (2006): 40.

은 아니었기에 외면적으로 풍족할지라도 내면적으로 비어있는 그의 잠재의식은 이미 자아비판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연유로 그는 자신의 심연에서 계속해서 “나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오 정말 하고 싶다” (10)라는 자아의 외침을 듣는다.

헨더슨에게 아버지와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된 문제는 실존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에게 경제적 풍요는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주었지만, 유산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생존자의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 그의 아버지는 형 ‘딕’을 편애했고, 헨더슨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한 헨더슨의 소외감은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심화된다. 그는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켜면서 영적으로 교감하려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그의 노력은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지혜를 얻고자 수천 권의 책이 있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예전에 읽었던 글귀인 “죄 사함은 영원하고 정의가 제일 필요한 것은 아니다” (1)의 출처를 찾기 위해 책을 뒤져보지만, 나오는 건 아버지가 책갈피로 사용한 지폐뿐이다. 소외를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은 결과는 물질이라는 점은 그에게 정신적 공허함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헨더슨은 가족과 사회에서 더욱 소외되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다. 그는 두 번째 부인 릴리와 프랑스 여행 중 홀로 수족관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문어의 모습에서 소외의 두려움을 강력하게 경험한다.

나는 문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녀석도 나를 쳐다보느라 그랬는지 말랑한 머리를 유리에 납작 댔는데, 돌연 문어의 살갓이 창백하고 오뎅도뎅해지더니 - 마침내 허연 점박이가 되었다. 문어의 두 눈이 차갑게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많이 말한 것은 얼룩덜룩하고 부드러운 문어의 머리였다. 얼룩덜룩한 점들은 브라운 운동을 했고 그 우주적인 냉기 속에서 나는 죽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문어가 촉수를 바르르 떨며 유리를 짚고 움직이자 뽀글뽀글 거품이 일었고 나는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 날이야. 죽음이 내게 전갈을 보내는군’ 이라고 생각했다. (17)

헨더슨은 홀로 밀폐된 수족관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문어의 눈을 쳐다보며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한다. 문어는 죽음의 공포가 서려있는 우주의 냉혹함을 그에게 일깨운다. 헨더슨이 갖고 있는 사회와 가족에 대한 불만

은 그에게 죽음과 실존의 무의미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는데, 이것은 그가 수족관 속에 문어를 관찰하는 동안 급속하게 증폭된다.²¹⁾

헨더슨과 가족의 관계 역시 혼란 속에 빠져있으며 두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상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는 아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프랜시스(Frances)와 결혼하며 3명의 아이들을 두었지만, 전쟁에서 돌아와 이혼하고 바로 20살 연하의 릴리와 두 번째 결혼하며 쌍둥이 아들을 두었다. 어느 날 그의 큰아들인 에드워드(Edward)가 인디언 처녀와 결혼을 발표하자 그는 심하게 반대한다. 그 이유는 그가 인디언과 당당히 마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헨더슨은 그의 조상이 미국을 인디언에게 빼앗고 거대한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조상들의 행위에 대해 자손으로서 죄책감을 갖고 있다(19).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존자의 죄책감에 조상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가중되어 그의 정신 세계는 더욱 더 혼돈에 휩싸인다. 벨로우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절망에 빠진 당시 미국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백인 신교도들 즉, WASP가 먼저 치료되어야 한다고 믿고 헨더슨을 그들의 대표자로 내세운다. 헨더슨은 이와 같이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타락한 미국 사회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그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재생 과정이 아닌 미국의 재생 과정임을 암시 할 수 있다.

헨더슨과 자녀들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는다. 십대 딸 라이시(Ricey)는 추운 겨울 버려진 흑인 아이를 데려와 옷장에 숨겨놓는다. 헨더슨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거부한다. 라이시는 가족에 대한 헨더슨의 무관심에 반항하기 위해서 고아를 집으로 데려왔으며, 이 사건은 라이시가 아버지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심리적인 항의이다.²²⁾ 아버지와 소통의 단절로 감정적 교류가 없었던 헨더슨은 자녀와 관계에서도 고립을 선택한다.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영원한 삶을 염원하며 새로운 세대로 상징되는 유색인종 아기를 거부한 것이다. 불멸의 삶을 바라는 헨더슨에게 죽음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감이며 그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한다.

21) Singh, "The Political Satire in *Henderson the Rain King*," p. 26.

22) A Chavkin & N. F. Chavkin, "Family Dynamics in *Henderson the Rain King*," *Saul Bellow Journal* 24.2 (2011): 19.

죽음에 대한 만연한 공포는 헨더슨의 주위를 맴돌며 그의 목을 조여 온다. 그는 세입자 문제로 릴리와 사소한 다툼 후 식탁을 주먹으로 치고, 그 소리에 놀라 가정부 레녹스(Lenox)는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그는 이미 참전과 형의 익사로 죽음을 경험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킨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는 장례식을 위해 찾아간 그녀의 집에서 남겨진 초라한 세간살이를 목격하고 죽음 후에 남는 허망함의 공포에 사로잡힌다. 헨더슨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의 생존과 죽음의 무의미함에 공포를 느낀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의 시야를 막고 삶에 대한 근본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런, 체면도 모르고 부끄럽게! 통곡이 나올 정도로 망측하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쩌서 우리는 뭔가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는 걸까?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를 기다리는건 흠으로 지은 마지막 방, 창문도 없는 방인데. 그러니깐 제발, 헨더슨, 좀 노력해 봐. 너도 이런 몹쓸 병으로 죽게 될 거야. 죽음이 너를 끝장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야. 오로지 쓰레기만 남을 거라고. 왜냐,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아직 뭐라도 있을 때—지금 말이야! 제발 부탁이다, 떠나라.’ (36-37)

헨더슨이 느끼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은 중년인 그에게 본능적인 두려움이다. 죽음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인간 생존의 가치와 의미는 상실된다는 현실은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무한한 인간의 존재를 갈망하며 다가오는 죽음을 안간힘을 다해 거부한다. 벨로우는 한 인터뷰에서 헨더슨이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치료하는 것이며 그는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불안을 견딜 수 없는 인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²³⁾ 헨더슨이 간절히 추구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의 명확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불확실성 즉, 자아의 인식과 죽음 그리고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해 커다란 공포를 느끼며 그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그 무언가를 찾기 원하며 아프리카로 향한다. 주변의 상황들은 그의 정신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갔기에 그에게 아프리카 여행은 불안한 것들에서 물리적, 심리적 격리를 통해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개인은 관계에서 너무 많은 불

23) Nina Steers, “Successor to Faulkner?” *Show IV* (Nov. 1964): 38. Requoted in Clayton, p. 172.

안을 경험할 때, 그 자신을 불안감의 원천에서 떼어 놓거나 벗어나려 한다. 따라서 헨더슨은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압도하듯 위협하는 박해의 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시도한다.²⁴⁾

헨더슨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현실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초적 중심지인 아프리카를 선택한다. 그는 오늘날의 미국사회와 마찬가지로 크고, 불안정하고, 부유하고,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과장된 말투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구원의 필요성에 사로잡혀 있다.²⁵⁾ 그는 재생의 잠재력과 구원을 믿고 생명의 원초적 중심지이자 내면의 여행지로서 아프리카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그곳은 그의 내면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실존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분화구이자 새로운 자아를 탐구할 수 있는 희망의 장소이다.

헨더슨은 자신의 불확실한 내적, 외적의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자아 갈망의 외침이라는 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체적 고통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려 하지만 실패한다. 가족과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생존자의 죄책감과 소외감이라는 외적 문제 역시 해결하지 못하고 그에게 죽음의 공포감이 중첩된다. 그러므로 헨더슨은 현실세계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인간의 원초적 중심지인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 한다. 헨더슨에게 아프리카 여행은 자신의 혼란으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내·외면에 도사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실존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저항의 일원이다.

24) Chavkin, pp. 15-18.

25) Donald W. Markos, "Life Against Death in *Henderson the Rain King*," *Modern Fiction Studies* 17.2 (1971): 194.

III. 자아성찰을 위한 내면의 여정

벨로우는 인터뷰에서 『비의 왕 헨더슨』을 썼을 때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으며, 이 소설의 모든 아프리카적인 것들은 완전한 창작으로 그가 꾸며낸 것이라고 말했다.²⁶⁾ 물론 벨로우 이전의 작가인 콘래드(Joseph Conrad)나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작품에도 아프리카는 진리의 근원지로 등장하지만 이들의 주인공들과 달리 헨더슨은 아프리카에서 외면적 모험이 아닌 내면적 모험을 중요시한다. 또한 백만장자인 헨더슨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빈곤함에 시달리며 여행을 떠난다는 점에서 물질적인 것은 인간의 본질일 수 없다는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관념론과 유사점을 보인다. 헨더슨에게 아프리카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기보다는 그의 정신적 재생을 위한 형이상학적이면서 진정한 과거의 장소이다.²⁷⁾

오직 아프리카에서만 『비의 왕 헨더슨』의 모순에 대한 적절한 재료가 혼합 될 수 있다 . . . 아프리카는 인간 기원의 장소라고 상상할 수 있다 . . . 아프리카는 영감의 원천이나 혼돈의 선구자로 여겨지던 탈 식민지화를 위한 투쟁의 상징적 장소이다.²⁸⁾

헨더슨은 누구든 바다에 가면 자기만의 바다가 있고 그들의 가슴속에는 자기만의 아프리카가 있다며 인간은 각자마다 정신적 재생을 위한 장소가 존재한다고 말한다(266). 그에게 아프리카는 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내면의 혼돈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에게 아프리카는 문제 상황을 회피하려 달아난 장소가 아닌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한 선택이며, 그곳은 인간 기원의 장소이자 정신적 재생을 위한 장소이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자아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려 시도한다. 그리고 세상살이는 다 마음에 달렸다 생각하고

26) Robert Robinson, "Saul Bellow at Sixty Talking to Robert Robinson," *The Listener* 93 (1975): 218.

27) Eusebio L Rodrigues, "Bellow's Africa," *American Literature* 43.2 (1971): 476.

28) Tim Watson, "Every Guy Has His Own Africa": Postwar Anthropology in Saul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A Forum on Fiction* 46.2 (2013): 290.

아프리카 여행은 단순한 외면적 여행이 아닌 정신적인 여행임을 직접 밝힌다 (160).

아프리카에서 헨더슨은 아르네위족과 와리리족을 차례로 만나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의 불안한 정신을 치유하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헨더슨은 운명에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모계사회인 아르네위족에서 삶의 욕구와 긍정적 인식을 확인한다. 그리고 운명에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와리리족에서 삶의 투쟁의지와 성취 욕구를 획득한다. 헨더슨은 그의 정신적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두 부족의 대조적인 경험을 통해 자아성찰과 인간성 회복에 이르게 된다.

1. 삶의 욕구와 긍정적 인식: 아르네위족의 경험

헨더슨은 문명사회에서 내면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자 사회와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두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아르네위족이다. 여행 초반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편협한 시선으로 그들의 관습을 바라보며 무시하지만, 아르네위족의 최고의 지혜의 여인인 윌라테일 여왕으로부터 두 가지 가르침을 받고 삶의 욕구와 긍정적 인식을 회복한다. 그러나 헨더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물질 문명의 산물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하다 실패하고 다시 혼돈에 빠진다.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과 기록은 사고를 획일화하고, 단일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곳의 여행은 표준화된 사고를 거부하고 새로운 관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헨더슨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갈구하며 친구 찰리(Charlie)의 신혼여행지인 아프리카로 동행을 결정하고 마침내 모험을 시작한다. 아프리카에 도착 후 그에게 계속 들려오던 자아의 외침은 잠시 멈춘 듯하다. 하지만 찰리가 온갖 최신 장비를 갖추어 캠프를 꾸려 사진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곧 다시 “난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40)라는 소리에 사로잡힌다. 본질적으로 풍족한 찰리의 여행이 헨더슨에게 내면의 고통을 불러일으킨 것인데, 이는 그의 아프리카 여정이 현대문명과 거리가 먼 정신적 여행을 위한 오지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찰리의 여행방식은 헨더슨의 내면을 위한 여행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그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런 이유로 그는 조력자 아프리카인 로밀라유와 오지의 아르네위족 마을로 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헨더슨은 아프리카 역시 선과 악, 진실과 위선 그리고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대의 축소판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다.

평화롭고 온순한 아르네위족은 소를 숭배하고 경외감마저 갖고 있다. 헨더슨은 아프리카 오지의 온화한 아르네위족으로부터 삶의 긍정적 인식을 경험하며 어린 시절 형과 아버지와 함께 하던 기억 속 ‘연분홍빛’ (95)을 목격한다. 그것은 예전 순수하고 아무 고통이 없던 시절에 목격했던 길조이다. 그 빛은 수족관 문어에게

서 목격한 냉기가 가득한 죽음의 빛이 아닌 생명의 빛이다. 헨더슨에게 아르네위 마을은 태초의 장소처럼 보이며 고대도시인 우르시보다 오래된 문명과 단절된 진정한 과거의 마을로 비친다(44). 헨더슨은 그곳에서 자신이 갈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르네위족은 운명에 수동적이며 무기력하다. 소가 가뭄 때문에 죽었어도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며 울고만 있다. 헨더슨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아르네위족의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가뭄으로 인해 기르는 소들이 죽어간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 저수지 속에 생명체인 개구리가 있어 그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기 때문이다. 헨더슨은 관습은 새로 만들면 된다고 개구리라는 미물에 대한 부족민의 관습을 무시한다(58). 외부인 헨더슨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관습을 바라봤기에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점을 인지하지만, 그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는 감각을 상실한다. 아르네위족에게 운명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일 뿐, 그것에 맞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적극성은 결여된 상태이다. 도시인 헨더슨도 오지의 아르네위족도 객관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헨더슨이 아르네위족에서 바라는 삶의 긍정적인 인식 안에는 현실 수용이라는 한계성이 도사린다.

헨더슨은 평소 부인 릴리에게 “당신보다는 내가 더 현실을 사랑해” (297)라고 말하며 자신은 충분히 현실을 인식 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 왔기에 그가 자만해 왔던 현실 인식은 그른 것이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프리카로 왔다. 하지만 죽음을 외면한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가 죽음에서 도망 치려할수록 그는 현실에서 멀어지고 그의 인식은 이타적 이기보다 이기적인 것에 머문다. 단적인 예로 헨더슨은 가뭄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르네위족 아이들에게 라이터로 관목에 불을 붙여 진정 시키려 하고 여왕에게 우비를 선물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헨더슨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아르네위족의 이텔로 왕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헨더슨은 영어를 구사하고 유럽에서 유학한 지성인 아르네위족의 왕자 이텔로(Itelo)를 만나고 굉장히 놀란다. 이텔로 왕자는 헨더슨이 아르네위족에 도착했을 때 소의 죽음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던 사람들 중 한명이었다. 로밀라유와 이야기하던 이텔로 왕자는 헨더슨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고 그때 헨더슨은 무

척 당황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울고불고 하며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할 것이란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다(48). 그동안 헨더슨은 편협한 사고에 갇혀 영어를 문명인의 고유 언어라 믿고 오지의 야만인들이 그것을 사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헨더슨은 문명과 떨어져 있어 무지한 아르네위족보다 자신은 더 높은 존재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들을 계몽할 위대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을 성서속의 인물이거나 식민지의 탐험가로 판단하고 그 결과 이텔로 왕자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²⁹⁾ 그러나 헨더슨은 그동안 편협한 사고방식에 젖어 무시했던 아프리카 오지인들 중에서 현인을 만나 삶의 지혜를 얻는 모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헨더슨은 문명사회에서 겪지 못한 인간 대 인간과의 진정한 교감을 아프리카 오지의 여왕과 소통을 통해 시작한다. 사자가죽을 두른 노파인 윌라테일 여왕은 백내장으로 인해 청백색의 눈을 지녔지만 헨더슨은 그녀의 모습에서 안정감과 신비한 기운을 느낀다. 이텔로 왕자의 말에 따르면 아르네위족의 최고의 지위와 지혜의 여인인 윌라테일 여왕은 “슬픔의 여인(Woman o’ Bittahness)” (70)으로 그들의 언어로는 비타(Bittah)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슬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 보인다. 아르네위족에게 행복과 슬픔은 반대말이 아니라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슬픔의 여인’이란 행복과 슬픔을 동시에 함유하는 말이다. 인간존재의 본질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아르네위족에게 슬픔과 행복은 구별 불가능한 감정인 것이다. 이텔로 왕자는 헨더슨에게 비타의 존재에 대해 덧붙여 설명한다. 이텔로 왕자에 따르면 비타란 대단히 높은 존재로 그 이상 높거나 훌륭한 지위는 없으며, 그는 여자인 동시에 남자이며, 남편인 동시에 아내이자,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인 사람이다(70). 아르네위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윌라테일 여왕은 헨더슨을 만나자마자 그의 고통을 감지하고는 그를 끌어안아 위로한다. 그는 윌라테일 여왕에게서 신비스러운 힘을 느끼고, 여왕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헨더슨은 지금이 드디어 그의 타락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시간(the hour that burst the spirit’s sleep)” (72)³⁰⁾이며, 내면의 문제를 해결

29) Strand, p. 290.

30) 이 구절은 벨로우가 영국 낭만주의 시인인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의 시

하고 자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헨더슨은 아르네위족의 비타인 윌라테일 여왕을 만나 두가지 인생의 지혜를 얻는다. 영어를 구사하는 이텔로 왕자는 윌라테일 여왕의 말을 통역해 헨더슨에게 전한다. 그녀의 첫 번째 가르침은 “세상은 어린 아이에게 낯설다” (78)는 것이다. 헨더슨은 여왕의 교훈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그의 내부의 불확실한 정체에 대해 인지한다. 어린 아이들은 세상의 두려움을 모르기에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삶의 모습에 감탄한다. 그러나 성인들은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유한한 인간에게 두려움의 핵심은 바로 죽음이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시도한다. 새로운 세계의 생소함이 성인에게는 그 두려움을 있게 만든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잊힌 것이지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새로움의 연속인 오지는 이 세상에 없다.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반면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성인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삶에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항상 그들 주위에 있다. 헨더슨은 여전히 그만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에 여왕의 말을 곡해하게 되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헨더슨은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윌라테일 여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가치와 삶의 지표를 얻고자한다. 여왕은 그에게 그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는다. 자아를 탐구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내면 여행을 결심한 헨더슨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대답하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물음이다. 이에 헨더슨은 스스로 자문한다.

누구나? - 나는 누구나? 정처 없이 떠도는 백만장자. 세상으로 내몰린 무지막지하고 난폭한 사나이. 조상이 정착한 모국을 도망쳐 나온 남자. 심장이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말하는 녀석. . . . 그러니 여기 사자 가죽과 (단추를 위까지 모두 채운) 비웃을 두르고 앉은 늙은 여왕에게 내가 무얼 말할 수 있겠는가? 내게 주어진 애초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그 치료제를 찾으러 떠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죄

“Revolt of Islam” : “I do remember well the hour that burst my spirit’s sleep.” 의 후렴을 인용한 것이다. (Kirsch, p. 55.)

사함은 영원하다고 어디서 읽은 적이 있지만, 늘 그렇듯 부주의해서 어느 책이었는지도 모른다고? (71-72)

윌라테일 여왕의 첫 번째 교훈에도 불구하고 헨더슨은 여전히 자아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의 인간성 확립을 위해서는 목적도 대상도 없이 끊임 없이 계속되는 자아 갈망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윌라테일 여왕은 헨더슨 내면의 고뇌와 뛰는 심장을 간파하고는 그를 위로 한다. 헨더슨은 그들의 질문에 자신의 방문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라고 답한다(78). 그에게 건강이란 육체적인 신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지닌 특이한 질병으로 부터의 회복을 의미한다. 헨더슨은 자신의 내면은 성미와 허영, 무분별(temper and vanity and rashness)이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했기에 올바른 인간성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한탄한다(78). 그러므로 헨더슨에게 건강을 위한 여행은 정신적 재생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의미하며 그는 여왕의 가르침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려 한다.

헨더슨은 과거 여러 번 죽음을 경험하고는 항상 인간 존재의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런 헨더슨에게 윌라테일 여왕은 두 번째 삶을 교훈을 전한다. 여왕의 가르침은 사람은 살기를 원한다는 뜻을 지닌 “그룬 투 몰라니(Grun-tu-molani)” (79)이다. 헨더슨은 항상 살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깨닫지 못해 왔다. 따라서 “그룬 투 몰라니”는 그의 내면에 있던 생존의 욕구를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그는 자신을 괴롭혀온 자아 외침의 원인이 생존 욕구라는 것을 깨닫고 무척이나 고무된다. 헨더슨은 그에게 커다란 고통인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려준 여왕에게 보답하기로 결심한다.

윌라테일 여왕은 백내장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음에도 헨더슨에게서 삶의 열정과 생존의 욕구를 발견하지만, 정확한 삶의 방향은 알려주지 않는다. 헨더슨은 그가 완벽한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 생각하고 성급히 여왕에게 감사의 마음의 전하려 한다. 그는 보답으로 마을의 골칫거리인 저수지에 있는 개구리를 해치우려 한다. 그러나 아르네위족은 가뭄의 고통에 순응하고 투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저수지 속 개구리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저주의 화신이자 미신에서 비롯된 공포이다.

모든 것이 가치에 달렸다. —가치에. 그렇다면 현실은 어디 있는가? 그대에게 묻노니 현실은 어디 있는가? 나만 해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권태로운데도 내 주의에는 행복이, 객관적인 행복이 넘쳐흘렀다. 마치 소들이 마실 수 없는 저수지의 물처럼.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일종의 상부상조 거래이므로 아르네위 부족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들이 도와줄 것이다. (82)

아르네위족은 저수지를 가득채운 물이 있지만 그들의 관습 때문에 탈수로 죽어가는 소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 헨더슨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가문의 출신이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하며 괴로운 삶을 산다. 그는 아르네위족과 자신은 둘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스스로는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한다고 여긴다. 여왕이 그에게 전한 ‘그룬 투 몰라니’ 라는 삶에 대한 비전으로 인해 그는 새로운 생존의 욕구와 삶의 긍정적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나서서 그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시도한다. 그가 개구리를 없애는 것은 여왕의 가르침에 대한 보답이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헨더슨은 저수지속에서 개구리를 목격하고 그 출렁이는 물이 그의 내면으로 들어온다고 느낀다(57). 그는 저수지에 있는 개구리에게 자신의 문제를 투영시키며 그가 개구리를 제거 하고자 행하는 폭력에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한다. 이는 헨더슨이 개구리에 대한 아르네위족의 두려움을 그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상징을 그들에게서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³¹⁾

비록 헨더슨은 자신의 일을 망친 경험이 많지만 이번에는 성공해 보임으로써 아르네위족에게 보답할 때라고 확신한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최신의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제조한 폭탄을 개구리로 가득 찬 저수지로 던진다. 그가 신중하게 던진 폭탄은 저수지 한 가운데서 터지고 폭발로 인해 개구리 사체가 공중에 흩어졌다 땅으로 쏟아져 내린다. 개구리를 제거하고자 한 그의 계획은 마침내 성공으로 비친다. 하지만 폭발의 영향으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르네위족의 저수지도 같이 무너지고, 물을 막아보려는 그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간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는 죽은 개구리들을 빠른 속도로 부패시키고 그는 실패했다는 결과

31) Robert R Dutton, *Saul Bellow* (Boston: Twayne Publishers, 1982), p. 100.

앞에 참담함을 느낀다. 메마른 아프리카의 땅에 쏟아진 저수지의 물은 급속도로 증발되고 그 광경을 목격한 아르네위족과 윌라테일 여왕은 통곡할 뿐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인다. 헨더슨은 선의에 넘쳐 저수지로 폭탄을 던졌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이 같은 헨더슨의 희비극적인 행동은 아프리카라는 고대의 장소에서 현명함을 뽐내는 괴짜 미국인을 패러디한 우화로 비친다. 그는 태초의 순수한 땅인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물질문명의 이기를 버리지 못했고, 그가 믿는 현대 기술문명의 지나친 우월감으로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끝났던 이유는 그가 문제 해결을 이성이 아닌 육체의 감각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인생의 지혜를 갖고 있는 윌라테일 여왕을 만났을 때 역시 그는 여왕의 내면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잇몸의 통증을 느꼈다. 이렇듯 신체적 감각에 의존한 선부른 판단은 헨더슨에게 내면의 고통을 가중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

헨더슨은 아르네위족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인간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했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다시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다. 개구리가 저수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자연의 섭리로서 당연한 일이다. 반면에 인간은 숙명적으로 저수지를 정화하는 것보다 오염시킬 수 있을 뿐이며,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죽음을 다스릴 수 없다. 또한 개구리 사건은 이 소설에서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헨더슨은 그의 마음에 있는 ‘참을 수 없는 합병증(the unbearable complication)’ 즉, 문제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나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인지하게 된다.³²⁾ 헨더슨이 개구리 사건으로 보여준 결과는 인간이 이룩한 과학적 성취는 정신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드러낼 뿐이다.

삶의 긍정적 인식을 획득한 듯 보였던 헨더슨에게 다시 혼돈을 안겨준 현실 인식이라는 한계성은 아르네위족의 습성과도 관련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아르네위족과 와리리족은 같은 부족이었지만, 상반되는 행운의 문제로 둘로 나뉘었다. 두 부족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아르네위족은 운명을 수동적으

32) Sukhbir Singh,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Explicator* 50.2 (1992): 118.

로 받아들이며 고통을 고행의 과정으로 순응하기에 불운을 의미한다. 하지만 와리리족은 운명과 행운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며 좌절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운을 의미한다. 상반된 부족의 의미처럼 아르네위족은 운명에 순응하고 그들이 숭배하는 소와같이 온순하고 평화적이며 자신들의 고난 앞에서 울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갈등이 없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듯이 아르네위족의 수동적인 운명에 대한 태도는 현실 인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윌라테일 여왕은 죽음의 결과인 사자가죽을 두르고 ‘그룬 투 몰라니’ 라며 그에게 생존의 욕구를 고취시키며 삶에 대한 욕망을 격려한다. 그러나 그녀의 한쪽 시력을 상실한 “백내장에 청백색의 눈” (67)이 상징하듯 그녀의 가르침은 정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가르침이다. 그들의 전설에서 알 수 있듯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아르네위족은 운명에 수동적인 불행한 부족인 것이다.

결국 헨더슨은 아르네위족에서 그를 괴롭히는 자아의 외침의 정체가 생존의 욕구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그에게 삶의 지혜를 전파한 윌라테일 여왕은 삶의 긍정적 인식으로 가득 차 보였지만, 여왕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며 올바른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드러낸다. 헨더슨 역시 그의 문제를 이성이 아닌 육체의 감각에 의존해 해결하려 했을 뿐더러 자신의 힘이 아닌 현대 과학의 산물을 이용함으로써 물질문명의 한계에 부딪친다. 헨더슨은 자신과 오지인 아르네위족 모두 한계가 존재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아르네위족에서 삶의 긍정만 확인하였을 뿐 정확한 삶의 지표 획득에는 실패하고 다시 혼돈의 상태에 빠져든다. 이제 헨더슨은 아르네위족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삶의 투쟁의 장소인 와리리족으로 향한다. 그곳은 이텔로 왕자와 함께 유학한 지성인 다푸(Dahfu) 왕이 있는 마을로 헨더슨의 건강하지 못한 정신의 힘에서 발산된 ‘참을 수 없는 합병증’의 도피처이자 새로운 자아 탐험의 장소이다. 헨더슨은 행운의 부족인 와리리족에서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고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2. 삶의 투쟁의지와 성취 욕구: 와리리족의 경험

실패로 끝난 헨더슨의 희비극적 행동은 물질문명의 산물인 과학 무기의 역효과와 인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다. 그가 믿는 과학적 지식은 정신적 재생의 장소인 아프리카에서 비효율적이며, 그는 아직 아프리카의 원시성과 동화되지 못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인다. 사실, 헨더슨이 저수지와 개구리를 폭탄으로 폭파한 것은 과학, 기술, 힘에 대한 미국적 신념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은 마술과 신비주의적인 아프리카의 신념에 역행하는 상징적 행위이다.³³⁾ 그러나 헨더슨의 전형적인 희비극적 행동 때문에 그는 와리리족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운명으로 이끌리게 된다.

와리리족은 모든 것이 아르네위족과는 반대이다. 와리리족은 가축을 잔인하게 도살하여 제물로 바치고 외부 방문객을 구금하고, 기우제 의식에 실패한 사람을 죽이며, 마을 주변에 시체를 매달아 놓거나,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춤을 추는 “어둠의 자식들” (109)이다. 헨더슨은 자신들의 행복과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적이고 호전적인 와리리족에서 세 단계에 걸친 정신적 성장을 경험한다. 사자를 숭배하는 와리리족은 아프리카 최대의 고난인 가뭄을 ‘비의 신’에게 적극적으로 기원하며 기우제를 거행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 헨더슨은 삶의 투쟁의지와 성취감을 얻게 된다. 또한 그는 다푸 왕이 그에게 행하는 사자 훈련을 통해 죽음이라는 현실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죽음보다 위대한 인간 정신과 상상력의 힘을 체험한다. 깨우침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푸 왕의 고귀한 죽음을 통해 인간애를 확인하고 정신적 재생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꾀하게 된다.

헨더슨은 와리리족의 기우제를 통해 신에게 비를 요구하는 도전적인 인간의 모습을 목격한다. 그들은 기우제가 열리는 경기장 한 가운데 부족민을 세워놓고 채찍질을 가하며 그를 제물로 사용한다. 그들의 기우제에서 인간은 천상의 펌프이며 그 피는 비를 내리게하는 의식의 한 부분이다(165). 헨더슨은 와리리족이 기우제에서 보여준 잔인성에 긴장한다. 와리리족의 장수들은 기우제에서 신상을

33) Singh, “The Political Satire in *Henderson the Rain King*,” p. 30.

들어 올려 정해진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신들에게 기원한다. 헨더슨은 육체의 힘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들의 행동을 눈여겨 지켜본다. 신상을 옮기는 기우제의 최고조 단계에서 제일 거대하고 무거운 신상인 구름의 여신인 뭉마(Mummah)만 남게 되자 앞서 신상을 들어 옮겼던 장수들은 그들에게 돌아온 기회를 포기한다. 헨더슨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과시할 기회가 온 것에 대해 무척이나 고무되어 실패한 장수의 주요 원인은 “지나간 실패에 대한 기억” (177)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항상 무언가 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자아의 외침에 응답하며 살아왔다. 그 응답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또 다시 자아의 본능적 욕구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현재 헨더슨의 자아의 외침은 예전과는 다르게 명료하다.

너는 인간이야. 명심해! 내 말을 들어보라고, 이 맹추야! 넌 앞을 못 보고 있어. 우연한 길이었지만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어. 그러니 이제는 누그러뜨리지 마 네가 타고난 재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기름진 핏속에 아둔하게 머물러 있다면, 대우주는 자기가 내보냈지만 아무 소득도 거두지 못한 것을 곧바로 되찾아 갈 거야. 그 기이한 특징들은 실체의 핵심—목은 실체의 핵심—에서 비롯된 일련의 충동일 뿐이야. 꼭 너에게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마침내 그 목적이 드러날 거야. (180)

헨더슨은 뭉마 신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온전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이번 일을 성공시켜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뭉마 신상을 들어 올릴 때 그는 그것으로부터 아르네위족 윌라테일 여왕의 생명력과 신비로운 힘을 느낀다. 헨더슨은 이번 성공으로 인해 그동안 잠자던 그의 영혼이 깨어났음을 느끼고 그가 ‘그룬 투 몰라니’의 지혜도 잊지 않았음을 확인한다(185-6). 지난 아르네위 족에서의 개구리 사건과 뭉마 신상사건은 충동적인 본능의 행동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는 문제 해결의 근원에 자신의 의지, 즉 정신적인 힘이라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구리를 제거하고자 했을 때 헨더슨은 물질문명의 이기에 대한 지나친 확신 때문에 실패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능력을 믿고 이성의 올바른 판단으로 뭉마신상을 들어 올림으로써 그는 드디어 진정한 성취

감을 획득한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은 앞으로 그에게 삶에 대한 투쟁의지와 성취 욕구를 고취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한다.

와리리족 사회에서 몸마를 읊긴 장사는 ‘성고(Sunggo)’ 라는 ‘비의 왕(The king of the rain)’ 으로 추대된다. 헨더슨은 비의 왕으로서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기대 하지만, 커다란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공식적으로 비의 왕이 된 헨더슨은 와리리족의 여장군들로부터 성고가 되기 위한 승격 의식을 치른다. 여전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그를 에워싸고, 문명의 상징인 그의 옷을 벗기고 진흙탕에 빠뜨린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채찍질 속에서 헨더슨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려 애쓰며, “나는 그들과 함께 터벅터벅 걸으며 내가 누구 인지를 기억해 내려고 애썼다. 나는 말이다 . . . 나는 비의 왕이었다” (192)고 되 된다. 진흙과 오물로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벌거벗겨진 모습은 인간의 태고적 형태를 띠며, 그는 보잘 것 없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수치심도 우월감도 잊은 채 인간의 근원은 같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다. 헨더슨은 와리리족을 위해 비의 왕 성고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헨더슨이 완벽하게 현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 요소이다. 그는 와리리족에 도착 직후 움막에 감금되고 와리리족의 군 인들은 헨더슨의 육체적 힘을 시험해 보려는 목적으로 그를 지켜본다. 구금된 상태에서 그가 절대 부러지지 않으리라 믿었던 아크릴로 만든 의치가 부러지고 그 것으로 인해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영원하리라는 불안감에 휩싸인다(123). 헨더슨은 움막의 구석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후각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 지한다. 그는 아름다운 것을 목격할 때와 같이 두려움을 감지할 때도 이성인 아 닌 감각을 통해 느껴왔다. 헨더슨은 “요즘 들어 시체를 자주 보게 되는 이유가 뭐지?” (129)라며 주위에는 죽음이 항상 존재해 왔던 사실을 상기한다. 그에게 시 체는 마치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체로 상징되는 죽음은 “해 결해야 할 과업” (131)이다. 헨더슨은 구원과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시체가 나 사로(Lazarus)처럼 살아나 자신의 목을 조를까 두렵지만, 그는 시체를 등에 둘러 메고 협곡 밑으로 처리한다. 그의 자아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그를 조롱 하며 죽음에서 도피하려 한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죽음에서 도망치려는 인류의 아둔한 생각을 비웃듯이, 다음날 아침 헨더슨이 갖다 버린 시체는 그의 옆으로

돌아와 있다. 헨더슨은 다시 돌아온 시체를 통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실, 『비의 왕 헨더슨』에서 벨로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도시 주인공을 사람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원하는 대로 살고 그들의 관습에 따라 죽는 원시 문화에 노출시킨다. 그들은 죽음이 필연적인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받아들인다. 헨더슨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정신을 흡수한다. 그것은 헨더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³⁴⁾

이는 벨로우가 헨더슨이 여러 번 죽음과 마주하도록 불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헨더슨은 죽음을 피해 아프리카로 왔지만, 도처에서 죽음을 목격한다. 그는 유한한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와는 상반되게 다푸 왕은 죽음을 초월한 자연인이다.

다푸 왕은 죽음과 삶을 동일시하며 기우제에서 선왕의 해골로 태연히 경기를 진행한다. 해골을 사용하여 다푸 왕과 어린소녀가 벌이는 경기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모르고 사자처럼 용맹한 인간의 모습을 연상 하게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헨더슨에게 그들의 경기는 진정한 예술가가 이뤄낸 작품처럼 비친다. 그의 무질서한 삶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는 예술의 아름다움이 혼돈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시간을 재분배 할 수 있음을 감지한다(168). 다푸 왕은 경기를 마치고 헨더슨에게 언젠가 다음 왕에 의해 그의 두개골 역시 공중으로 던져질 날이 오리라는 것을 언급하며 생사의 구속에서 자유로운 초월적인 모습을 보인다. 헨더슨은 이런 다푸 왕에게서 자연의 순리를 배우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체를 얻고자 한다.

헨더슨은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다 아버지인 전왕의 죽음으로 와리리 마을로 소환된 다푸 왕을 반(半) 야만인으로 칭하면서도 그의 지혜로써 정신적으로 재생할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갖는다. 그는 다푸 왕이 문명사회와 원시사회를 조화시킬 수 있는 “인생에서 탁월한 재능” (202)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에게서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는 윌라테일 여왕과 일종의 “잡종의 인물 (a hybrid figure)”³⁵⁾인 다푸 왕에게서 “특별한 그림자” (202)를 느낀다. 그는 문명

34) Singh, “The Political Satire in *Henderson the Rain King*,” p. 32.

사회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아프리카 오지에서 문명의 교육을 받은 반야만인 왕인 다푸에게 얻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과학의 산물도 한계성이 있으며, 헨더슨이 야만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관습에도 진리는 존재한다. 과거 헨더슨은 문화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딸 라이시가 유색인종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존재를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같은 유색인종인 다푸 왕은 헨더슨에게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심어준다(145). 자신감으로 무장한 ‘느긋한 활력의 정신’ 이 깃든 다푸 왕 내면의 힘은 헨더슨의 민중중심주의 사상까지 변화시킬 만큼 충분히 강하다.³⁶⁾ 헨더슨은 다푸 왕의 검붉은 눈에서 삶에 대한 강한 투쟁의지와 성취 욕구를 보았지만, 다푸 왕 역시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불안한 위치에 있다. 와리리 죽은 왕이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제일 높은 무당인 부남(Bunam)과 제사장들이 연합해 왕을 목졸라 죽이고 그의 시체에서 나온 구더기를 그의 영혼이라 칭한다. 그리고 그들은 밀림에서 사자 새끼를 잡아서 왕의 영혼이 깃들어있다고 선포한 후 새로운 왕의 후계자를 발표한다. 다푸 왕은 아직 선왕의 영혼이 깃든 그밀로(Gmilo)라는 사자를 잡지 못해 완전한 왕으로서 통치권이 없기에 그 역시 아직은 ‘변해가는 자(becoming)’ (153)에 불과하다.

헨더슨의 눈에 비친 아르네위족의 윌라테일 여왕과 다푸 왕은 모든 것을 초월했으며, 인간존재의 의미를 통달한 “존재하는 자(being)” (153)이다. 반면 그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인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변해가는 자이다. 그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변해가는 자’ 로서 존재의 모습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런 그에게 다푸 왕의 “무엇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되었소, 헨더슨 씨?” (152)라는 질문은 단순한 여행의 목적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행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이다. 헨더슨에게 아프리카 모험의 목적은 자아외침의 근원을 알아내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존재하는 자’ 가 되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뻗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데에

35) Strand, p. 298.

36) Watson, p. 283.

서 만족을 찾는다는 말을 덧 붙였을 것이다. . . . 존재. 그런가 하면 변해가는 데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 존재하는 인간은 늘 휴식을 취한다. 변해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운하고 언제나 초조하다. 변해가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늘어놓거나 변명을 해야 한다. 반면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이 나오도록 자극한다. . . . 이제 그만! 충분해! 변해 가던 시간. 존재하는 시간! 잠자는 영혼을 깨부셔라. 깨어나라, 이국이여! 전문가에게 도전하라! (153)

헨더슨은 그동안 내적 고통을 해결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진리를 원했지만 인간 소외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힌다. 그는 윌라테일 여왕에게서 생존 욕구에 대한 깨달음-그룬 투 몰라니-을 얻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헨더슨은 다푸 왕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의 핵심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 와리리족과 다푸 왕의 본질적인 역할은 헨더슨에게 현실을 직시 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아르네위족에서 획득한 한계를 넘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현실의 삶에 충실 하도록 하는데 있다.³⁷⁾

헨더슨은 그동안 이성이 아닌 육체적 고통을 통해 진리를 체득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다푸 왕은 그 행위를 지적하며, 인간은 “복수의 존재” (206)이기에 육체적 고통으로 진리를 얻을 수 없고,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해야 진정한 평화를 얻는 존재임을 명시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다른 이의 고통을 전가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이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끝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악을 선으로 돌려주는 용감한 사람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용감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끌어안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을 그냥 참고 견뎌내기만 할 뿐 아무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 즉, 인간존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고립된 존재는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오지 못해 불균형의 사고에 빠진다.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존재는 무질서와 혼돈으로 고통을 받고, 올바른 인간성과는 멀어져 간다. 선으로 악을 갚는 고귀한 존재만이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재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푸 왕은 “헨더슨 성고, 당신에게서는 ‘살려 줘, 살려 줘, 이제 뭘 해야 하지? 내가 뭘 해야 하느냐고? 지금 당장!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비명이 들려요” (210)라고 말하며 헨더슨에게 ‘그룬 투 몰라니’ 는 충분하지 않으며, 무언가 더

37) Clayton, p. 178.

필요하다고 전한다. 인간은 무한한 시간 속에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헨더슨은 자신을 위한 다푸 왕의 훈련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다푸 왕의 주요 관심사는 인간의 동물적 본성과 우주와의 원시적인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³⁸⁾ 또한 그의 훈련의 목적은 헨더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신적 재생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푸 왕은 계속해서 헨더슨에게 가르침을 전파한다. 다푸 왕에 따르면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 죽음이란 유한한 신체에 해당할 뿐이므로 인간은 무한한 영혼을 단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푸 왕은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헨더슨에게 사자 훈련을 시작한다. 사자 훈련은 육체와 정신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심리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 힘을 믿고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다푸 왕은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주기도,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주었다가 다시 정신으로 간 후 또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 있다” (227)고 말하며 헨더슨이 자신의 훈련을 잘 따라 올 것을 지시한다. 다푸 왕의 훈련 방식은 육체적 변화를 통해 정신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마치 육체와 정신의 시소 운동과 유사하다. 그의 가르침은 육체는 정신으로, 정신은 육체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심리이론을 배경으로 한다.³⁹⁾ 다푸 왕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에 자연을 그대로 흉내 내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질병이란 정신이 하는 강연” (229)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푸왕은 마음먹기에 따라 두려움을 다른 증세로 바꿀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희망으로도 바꿀 수 있음을 일깨우며, 헨더슨이 사자처럼 행동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의 속성을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229).

결국 인간의 정신적 열망은 육체적으로 나타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푸 왕은 인간의 육체는 정신이 만들어 내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토로한다.

“그건 모두 대뇌피질에 바람직한 모델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요. 고귀한 사람들

38) Markos, p. 198.

39) M. A. Quayum, “Transcendentalism and Bellow’s *Henderson the Rian King*,” *Studies in American Jewish Literature* 14 (1995): 51.

에게는 자아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소. 왜냐하면 사람은 자아상에 따라 만들어지거든.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의 육신은 영혼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요. 또는 혹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예술가라고도 할 수 있소. 몸과 얼굴에 남몰래 색을 입히는 것은 다름 아닌 영혼이고, 영혼은 대뇌피질과 제3뇌실, 제4뇌실 사이로 작용하는데 그 뇌실로부터 생명 에너지가 전신으로 흘러가는 것이오. 이제 내가 그토록 열광하는 현상이 이해될 거요. 헨더슨 성고.” (259)

이러한 다푸 왕이 습득한 깊이 있고 방대한 지식은 아프리카나 와리리족의 관습에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유럽인들의 이론에서 기인한다. 또한 헨더슨을 향한 다푸 왕의 궁극적인 호소는 콘래드 같은 소설가들이 백인의 유럽인을 위해 남겨둔 육체적, 정신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식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⁴⁰⁾ 이것은 WASP인 헨더슨이 아프리카인 다푸 왕에게 문명인의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벨로우가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류학자인 벨로우가 서로 다른 문화끼리 융화의 가능성을 작품 안에 투영했기 때문인데, 이를 반영하듯이 헨더슨이 지닌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은 그가 여행을 거듭할수록 흐려진다. 그 예로, 헨더슨은 아프리카 오지인 아르네위족에서 지성인 이텔로왕자를 만나 그가 영어를 구사하는 것에 무척 놀라지만, 와리리족을 방문했을 때 움막에 감금당한 상태임에도 그들이 지도에서 고향을 찾아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지도에서 자신의 고향을 찾아준다(124).

다푸 왕은 ‘변해가는 자’인 헨더슨을 이미 원숙한 인간의 모습인 ‘존재하는 자’로 변화시키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헨더슨은 다푸 왕의 애완 사자 애티(Atti)의 정기를 흡수해 사자의 화신이 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점령당한 기존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생성하도록 훈련 받아야 한다. 다푸 왕은 헨더슨을 사자처럼 우주의 잔인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새롭게 지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려 한다. 그것으로 헨더슨은 올바른 삶을 향한 생존투쟁의 용기를 고취시키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여 육체와 정신을 통일시킬 수 있다. 다푸 왕은 헨더슨을 그만의 비밀 장소인 왕궁의 지하로 안내한다. 헨더슨이 계단을 내려갈수록 크게 들려오는 사자 울음 소리와 썩은 냄새는 그를 점점 더 겁에 질리게 만들었고, 그때 그에게 수족관 문어의 모습이 떠오른다.

40) Strand, p. 298.

바닥에 이르니 마지막 몇 계단은 흙이었고 벽면도 아랫부분은 흙과 섞여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바늘해양연구소의 수조관에서 해질녘에 봤던 점박이가 떠올랐다. 점박이 문어 그놈, 유리에 머리를 비벼댔지. 하지만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차가움이었다면, 여기서는 흐릿한 따스함이 느껴졌다. (212-3)

헨더슨은 수족관 문어에게서 우주의 차가운 냉혹함을 느꼈지만 아프리카 오지의 궁전 지하에서 웬지 모를 따스함을 느낀다. 그 온기는 그가 죽음의 공포에서 점차 해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헨더슨은 사자인 애티를 직접 마주하고는 죽음을 직접 마주한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광기의 신(God of Madness)”⁴¹⁾으로 상징되는 애티는 헨더슨이 직접 마주해야 할 모든 원시적인 폭력을 구현하기에 애티에게서 느끼는 공포는 이제까지 느꼈던 그 모든 공포 이상이다. 다푸 왕은 헨더슨이 애티의 아름다움을 인지하여 문제를 빨리 극복하길 바라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애티의 아름다움보다 강하기에 그 힘은 헨더슨에게 쉽게 작용하지 못한다.

헨더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달아나려는 인간의 본능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양면적인 욕구에 대한 충돌에서 비롯된다. 다푸 왕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을 이겨낸 결과요. 두려움을 극복할 때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요” (253)라며 헨더슨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투쟁의지를 고취한다. 공포는 회피하기보다는 맞설 때 극복할 수 있지만 헨더슨은 문제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과장된 행동으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숨기고 회피해왔다. 다푸 왕은 헨더슨이 애티와의 동질성을 키워야만 공포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애티는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존재(unavoidable)” (251)이며, 헨더슨은 그것을 “피해 다니는 존재(avoider)” (251)이다. 다푸 왕은 헨더슨이 언젠가 그가 소멸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고 있으며, 애티가 그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단언한다 (251). 다푸 왕은 헨더슨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선대왕들이 했던 것처럼 “사자 연기(acted the lion)” (255)를 하도록 권유한다. 사자 연기를 통해 그것의 용기를 흡수할 수 있고 그의 내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 Rhea, p. 44.

헨더슨은 인간이기에 갖고 있는 수치심으로 사자처럼 네발로 서기를 거부하지만 곧 사자를 따라 함으로써 그동안 욕망의 노예로 대표된 돼지, 개구리가 아닌 진정한 동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그렇게 해서 나는 야수가 되었다. 전력을 다해 오르려대다 보니 슬픔도 모두 빠져나왔다. 공기는 폐가 공급해 주었지만 명령은 내 영혼이 내렸다. 오르려대다 보니 목구멍으로 뜨거운 김이 치솟아 입가가 데었고, 얼마 안 있어 내 소리는 저음의 파이프오르간처럼 사자 우리를 가득 메웠다. 여기야말로 나의 심장이 아우성을 치며 찾아낸 바로 그곳이었다. 여기야말로 나의 종착지였다. (258)

헨더슨은 육체와 정신을 통일시키고자 한 다푸 왕의 의도처럼 동물과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는 사자를 흉내 내면서 내면의 불만과 불안을 쏟아내며 카다르시스를 경험한다.

다푸 왕은 사자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과 인간 특유의 능력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인간성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충고한다. 인간이 이룩한 모든 발자취는 상상력을 근본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인간은 자연의 대표적인 창조물이기에 상상력이란 인간의 본질적인 필수 요소이다(262). 다시 말해, 헨더슨이 그동안 믿고 있던 모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은 그를 상상력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벨로우는 인간이 자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초월주의 이론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이것은 벨로우의 인간관을 반영한 것으로 그는 인간이 위대한 능력을 현실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상상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다푸 왕이 헨더슨에게 전하는 인생의 지혜를 통해 벨로우는 상상력에 기초한 인간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헨더슨은 훈련을 거듭할수록 인간의 유한성과 사람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인정할 때 인간성 회복이라는 정신적 재생을 이룰 수 있음을 어렵듯이 인지한다. 다푸 왕이 헨더슨에게 행하는 훈련의 효과는 외양으로 나타나 그의 신체에서는 사자처럼 곱슬거리는 머리털이 무성히 자라났고, 그의 내면 역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여전히 헨더슨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은 신체적인 죽음일 뿐이며, “영혼의 죽음”(268)은 없다고 믿는다. 이러한 헨더슨의 믿음

은 다푸 왕과 훈련을 통해 그와 신념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헨더슨과 다푸는 또한 죽음과 불멸의 초월적인 견해를 공유한다. 영적 선구자들처럼 그들은 인간이 필사자이며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할지라도, 영혼 안에서 영원하고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믿는다.⁴²⁾

헨더슨은 다푸 왕과 신념을 공유함으로써 서서히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다. 그의 정체성 변화는 아내 릴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구름을 양쪽에서 보는 건 우리가 첫 세대야” (271)로 시작하는 편지에서 그는 문명적인 특권을 누린 세대라고 인정한다. 헨더슨은 조력자인 로밀라유를 만나 아르네위족의 여왕에게 배운 ‘그룬 투 몰라니’에 대해, 그리고 와리리족에서 성고가 된 아프리카의 경험담을 써 내려간다. 또한 그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던 바이올린 교습과 돼지 사육을 포기한다고 전한다. “비존재에서 존재로” (274)로 변화한 헨더슨에게 그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사자의 용기를 이어 받았기에 자신의 이름에 사자를 뜻하는 ‘Leo’를 넣어 “레오 E. 헨더슨(Leo E. Henderson)” (275)라고 칭하고 봉사의 삶을 위해 “죽음과 맞서는 예술(the death-fighting art)”⁴³⁾로 상징되는 의사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나도 이제까지는 지독하게 못되게 살아왔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는 분명히 선이라는 것이 있으라고 믿는다. “릴리, 이제 나 자신을 들볶는 일은 그만할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열망과 의지, 의지와 열망의 시대, 그것은 어떻게 끝을 맺었던가? 무승부로, 허무하게 끝났다 … “하고 싶어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내가?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녀가 하고 싶다, 그가 하고 싶다, 그들이 하고 싶다고 말이야. 더욱이 현실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건 사랑이야. 반대라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276-7)

헨더슨이 의사가 되겠다는 의지는 감각적인 욕망의 환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창조력이 잠재된 현실이다. 이러한 의도를 통해 그는 이제 실존을 중시하는 삶을

42) Quayum, p. 52.

43) Renée Sieburth, “Henderson the Rain King, A 20th-century Don Quixote?,” *Canadian Review of Comparative Literature* 5.1 (1987): 87.

영위하고 지속하길 바란다고 볼 수 있다. 그에게 죽음의 공포에 바탕을 둔 불확실성은 새로운 인간성으로 재생된 ‘레오 유진 헨더슨’을 위해 파괴되어야 한다. 그가 과거에 자신을 소외시키면서 얻으려 했던 진리는 의미가 없으며, 새로 재생된 자아를 위해 그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헨더슨에게 소외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a defense mechanism for his social anxiety)”⁴⁴⁾으로 불안에 대한 그 나름의 해결책이었지만,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기에 그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인간성 회복의 기로에서 자아의 외침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녀’와 ‘그’, ‘그들’인 모든 인류를 위한 외침으로 변한다.

헨더슨은 아프리카의 두 부족민과 유대의 경험을 통해 드디어 타인의 존재를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정신적 재생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는 타인에 대한 이해는 자신과 인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며, 그 사랑이 인간존재에 의미를 부여함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헨더슨은 다푸 왕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애는 죽음의 공포 그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헨더슨이 아름다움의 상징인 애티와 훈련을 거듭할수록 다푸 왕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애초 다푸 왕의 훈련의 오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은 이성이 아닌 육체적 감각의 생명체이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헨더슨이 인간성을 상실한 이유 중 하나 역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육체인 감각을 통해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물의 속성을 배우는 것으로 인간성 획득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헨더슨은 다푸 왕을 통해 인간만의 능력인 정신과 상상력의 위대함을 배움으로써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즉, 헨더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아를 찾을 수 있는 투쟁적인 삶의 의지와 성취 욕구를 ‘동물’ 애티가 아닌 ‘인간’ 다푸 왕에게서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푸 왕과 헨더슨은 인생의 지혜를 전달하는 교사와 제자의 역할로 관계를 시작하였지만 훈련이 거듭될수록 다푸 왕은 치료사 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형제이자 아버지의 역할까지 부여받는다.⁴⁵⁾

비록 다푸 왕의 훈련을 통해 과거 헨더슨이 이전에 사회의 제약에서 비롯된

44) Sieburth, p. 41.

45) Chavkin, p. 23.

인간성 상실을 극복했지만, 다푸 왕은 와리리족의 사회적 규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와리리족의 관습에 따르면, 다푸 왕이 아직 선왕의 사자인 그밀로를 잡지 못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자인 애티를 키울 수 없다. 진정한 왕위 계승을 위해서 다푸 왕은 선왕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사자 그밀로를 잡아야 한다. 다푸 왕은 완전한 왕권을 획득하기 위해 그밀로 사냥에 헨더슨과 함께 나선다. 다푸 왕과 헨더슨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맨손으로 호포(Hopo)에서 사자 몰이를 시도한다. 밀림에서 들려오는 야생의 사자 울음소리는 헨더슨이 애티로부터 들었던 소리가 아닌 실제 죽음의 소리다. 그가 진정한 죽음과 마주했을 때 애티 모방 훈련을 통해 이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은 현실 앞에 퇴색한다. 본격적인 사자 사냥이 시작되자 헨더슨은 죽음을 직접 마주한 실제 상황을 부정하며 자신이 릴리에게 “당신보다는 내가 더 현실을 사랑해” (297)라고 말한 것을 후회한다. 그가 잘 알고 있다고 믿어 왔던 현실은 극도의 공포감으로 다가와 그를 압도한다. 따라서 현재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실체가 없는 비현실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계속되는 사자 사냥에서 다푸 왕은 장대가 무너져 심각한 부상을 입지만, 잡힌 사자는 그밀로가 아니 다른 사자이다. 다푸 왕은 죽어가며 헨더슨에게 왕위를 계승해 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마코스는 다푸 왕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 이유로 “동물성 과잉(an overdoes of animal nature)” 을 들고, 그것을 사람이 너무 멀리 자연으로 후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설명한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더슨에게 다푸 왕의 죽음은 고귀하게 다가온다. 그 이유는 다푸 왕이 와리리족에 명백한 부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했음에도 부족에 돌아와 임무를 다한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용기 때문이다.

수천 세대 동안 두려움도 욕망도 거의 똑같았소. 아이나 아버지, 아버지나 아이나 똑같았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욕망했소 . . . 그렇다면 헨더슨, 세대가 흘러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게 설명해 주겠소? 변하지 않고 두려움과 욕망만을 되풀이하는 것? 이 때문에 세대가 자꾸자꾸 반복될 수 없소. 훌륭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순환을 깨려 할 것이오.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는 사람은 그 순환

46) Markos, p. 202.

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소. (287-8)

다푸 왕 역시 선진문물을 경험한 지식인이지만 아르네위족 이텔로 왕자처럼 자신들이 만든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푸 왕은 자신들은 “오래된 우주” (283)에 살고 있다며 헨더슨에게 “최고의 순간에 이르면 새것도, 낡은 것도 없이 오로지 어떤 본질만 남아 우리의 인생살이에 미소 지을 거요” (286-7)라고 전한다. 그는 관념에 사로잡힌 것이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고향처럼 인간은 두려움과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푸 왕은 죽음을 삶과 동일시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죽음을 받아들인다. 비록 다푸 왕 역시 그밀로를 잡지 못한 채 사망했기에 ‘존재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헨더슨은 다푸 왕이 보여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귀한 용기의 위대함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위한 본질 즉, 인간애를 깨닫게 된다. 그는 다푸 왕을 통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경험하고 삶의 의미와 인간을 이해하게 된다.⁴⁷⁾

헨더슨은 다푸 왕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는다. 그는 드디어 인간의 신체는 유한하지만 그 정신은 영원하다는 본질의 무한성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에 대한 갈망은 헛된 것임을 자각한다. 헨더슨은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다푸 왕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해 릴리가 예전에 말한 인간의 선함과 인간애를 납득하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릴리의 화제는 오로지 하나, 즉 도덕이었다. 사람은 이게 아니라 저걸 위해, 악이 아닌 선을 위해, 죽음이 아닌 삶을 위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식이었다. (14)

헨더슨은 과거 릴리를 철부지로 여기며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정신적 재생을 이룬 헨더슨은 그녀가 주장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존재함을 몸소 경험하고 과거의 그가 오만했음을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헨더슨은 와리리족과 함께 머무는 동안 그들로부터 물질적 유산이 아닌 평화로운 삶의 지혜를 얻은 수혜자로 변모

47) Clayton, p. 182.

한다.⁴⁸⁾ 그는 와리리족의 기우제를 통해 성고가 됨으로서 인생의 투쟁의지와 성취감을 얻었고 사자 훈련을 통해 현실을 받아들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 더불어 다푸 왕의 고귀한 죽음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인간성 회복에 이른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진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와리리족의 새로운 왕으로서 책임을 완수할 자신이 없다. 스승이자 아버지인 다푸 왕이 없는 아프리카는 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아프리카에서 이론정신적 재생을 통해 새로운 인간성을 장착하고 더 이상 동물과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회 속에서 인간을 향한 의식적 변화를 꾀한다.⁴⁹⁾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겨진 과제는 사회와 인류를 위한 봉사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그는 아프리카에서 획득한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릴리로 대표되는 사랑과 지성이 있는 문명사회로 돌아가려 시도한다.

48) Singh, "The Political Satire in *Henderson the Rain King*," p. 31.

49) Markos, p. 201.

IV. 정신적 재생과 인간성 회복

벨로우는 『비의 왕 헨더슨』에서 다수의 작품을 인용하고 있는데 특히 엘리엇(T. S. Eliot)의 『황무지』(The Waste Land, 1922)의 성배전설을 익살스럽게 패러디한다. 『황무지』에서는 풍요의 땅이 아니라 진짜 ‘황무지’에서 성배를 찾아나서는 기사 이야기의 전개이지만 벨로우는 헨더슨을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 위한 현대사회의 기사로 설정하여 다푸 왕의 교훈을 통해 현대의 긍정적 인식을 전하려 한다.⁵⁰⁾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 죽음 앞에서 다푸 왕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을 통해 헨더슨은 정신적 재생을 이루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친절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다푸 왕의 죽음 후 헨더슨은 일종의 죽음의 집에서 주검과 벽을 마주하고는 그가 비의 왕 성고가 된 것도 다푸 왕의 죽음도 모두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인지한다. 그동안 헨더슨은 인생의 자명한 진리를 외면하고 성급하게 해결 하려고 해왔기에 실패를 거듭했다. 이제 그는 내면에서 멈추지 않고 들려오며 그를 괴롭혔던 ‘나는 원한다’의 실체가 문제의 핵심을 보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다.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 그것뿐이다. 이 장면들은 한 번 보면 그것으로 끝일 뿐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지속적인 실체가 아닌 것이다. 다푸도 두 번 다시 볼 수 없고 머지않아 나도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성 성분은 볼 수 없다. 물, 해, 공기, 땅 말이다. (323)

자아성찰을 이룬 헨더슨은 자연의 장엄함을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각한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유한한 존재로 자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해간다. 인간은 무한성을 원하지만, 육체는 유한하기에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연의 속성이 변하지 않듯이 유한한 것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삶의 긍정적인 시각을 확인한 것이다.

깨달음을 통해 정신적 재생과 인간성 회복을 이룬 헨더슨은 헨델의 구원의 메

50) 안무승, 「희극적 모험을 통한 인간애의 발견-『우왕 헨더슨』을 중심으로」, p. 85.

시아를 부르며 “젊은 시절 내리 잔 잠” (324)에서 깨어난다. 헨더슨에게 아프리카 여행의 목적은 “오로지 핵심을 보기 위해 환각에 빠지지 않는 것” (154)이다.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된 헨더슨의 자아의 외침은 이제 멈추고 다푸 왕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이란 현실을 수궁하게 된다. 헨더슨은 사회 및 자기 자신과의 타협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충분히 직시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즉, 그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유대관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임을 깨닫는다.

헨더슨은 새로운 왕이 되어야 할 운명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에게 버거운 67명의 처첩들의 남편 노릇과 죽음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버린다. 정신적 잠에서 깨어나 참다운 자아를 획득한 그는 윌라테일 여왕과 다푸 왕과는 다른 운명의 창조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윌라테일 여왕은 현실 인식의 부재라는, 다푸 왕은 인간 육체의 유한성이란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다. 헨더슨은 “어떤 형태로든 왕은 살아 남아야 한다” (316)라며 다푸 왕의 시체 옆에 묶인 어린 새끼 사자를 데리고 로밀라유와 함께 와리리족에서 탈출에 성공한다. 그는 새끼 사자에게 다푸라는 이름을 부여하는데 이는 새끼 사자를 통해 다푸의 영혼이 영원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의 믿음은 에머슨이나 휘트먼(Walt Whitman)의 초월주의와 윤회사상을 떠올리게 한다.

헨더슨은 우주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틀어박힌 이상 그 우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용하지 못하므로 자신이 먼저 나서서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한다(309). 그는 인생의 진리와 인간의 고귀함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찬 자신의 우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한다. 그가 속한 세계로 회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 이유는 다푸 왕이 없는 아프리카에는 더 이상 지적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며 또한 “친절과 사랑” (307)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헨더슨은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복원하고자한다. 아마 그는 자신과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사회와의 관계를 복원하려하는 것이다. 헨더슨은 그를 사회와 연결시킨 그 자신의 영혼이 대 영혼(the oversoul)⁵¹⁾과 보이기

51) “*The Over-Soul*” 은 1841년에 출판된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2-1882)의 호평 에세이 이다. 에머슨에 따르면, 이 우주에 생명을 주고 모든 영혼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중심적인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대 영혼(the oversoul), 즉 신이었다. 에세이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고 광대하고 아름답다. 둘째, 어떤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의

않는 연결을 통해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그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더 큰 사회에서 그의 자리를 회복 할 수 없다.⁵²⁾

그동안 자의적, 타의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를 선택한 헨더슨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회복하려 시도한다. 그는 아프리카의 특정사회에서 체득한 유기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 더 큰 사회로 상징되는 문명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의 인간성 회복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이뤄졌기에, 그가 “풀잎이 나의 사촌이 돼야 해” (319)라고 말하듯, 그의 사랑은 식물과 동물까지 확대된다.

과거에 헨더슨은 형을 잃고 괴로워하는 아버지와 불화로 유랑생활을 했다. 그 당시 놀이공원에서 “고통받는 본성의 상징(a symbol of suffering nature)”⁵³⁾인 버림받은 늙은 곰 스몰락(Smolak)과 지내며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서 같은 처지를 느꼈다. 헨더슨과 곰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였고 그는 곰에 대한 사랑으로 내면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음을 기억해낸다(328). 따라서 아프리카 여행 이전에 그의 내면에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사랑의 본질을 기반으로 그는 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헨더슨의 내면에는 삶에 대해 투쟁적인 사자의 속성이 아닌 사랑으로 상징되는 곰의 속성이 강하게 내재한다. 그는 다푸 왕으로부터 체득한 사랑의 힘으로 형 대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극복한다. 비로소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던 “죄 사함은 영원하고 정의가 제일 필요한 것은 아니다” (1)라는 구절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용서를 통한 화해임을 알게 된다. 그가 다푸 왕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사자사냥에서 자신이 죽었으면 다푸 왕이 슬퍼했음이 당연하고, 형대신 그가 죽었다면 아버지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인생의 진리임을 깨닫는다.

헨더슨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페르시아에서 고아가되어 영어가 서투른 네바다(Nevada)의 친척을 찾아가는 아이를 만난다. 그는 고아에게서 자신의 자식들과의 어긋난 관계와는 반대로 순수한 사랑을 느끼며 박애주의자로서의

영혼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 연결의 정확한 방식과 정도는 철자가 되어 있지 않다. (“The Over Soul” Wikipedia, assessed April 1, 2017, https://en.wikipedia.org/wiki/The_Over-Soul)

52) Quayum, p. 54.

53) Markos, p. 203.

면모를 보인다. 그가 느낀 깊은 동정심과 책임감은 진정한 자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가 입양한 고아는 새롭게 회복된 그의 인간성을 암시한다.⁵⁴⁾ 변화된 헨더슨에게 고아의 의미는 새 출발의 희망을 나타냄과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의 그를 버리고 드디어 신인류를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것은 헨더슨이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새로 이룩한 인간성에서 비롯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헨더슨이 탑승한 미국행 비행기는 하르툼(Khartoum)을 출발하여 문명의 발달 단계와 같이 전진하듯 카이로(Cairo), 아테네(Athens), 로마(Rome), 파리(Paris)와 런던(London)을 경유하여 신대륙인 미국의 아이들와일드(Idlewild)로 향한다. 인류의 진화 과정과 유사한 이 과정은 그의 정신적 진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비행기는 뉴펀들랜드(Newfoundland)에 잠시 머물러 급유를 하게 된다. 그곳에서 헨더슨은 사자 다푸와 아이를 안고 비행기에서 잠시 내려 순수의 눈 위에서 연료 트럭 주의를 빙빙 돌면서 인생의 희망을 목격한다(330). 그가 목격한 순수의 하얀 빛은 수족관 문어의 냉혹한 죽음의 흰빛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빛이다. 그는 그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인류에 대한 사랑을 확산하기 시작한다. 그가 이룬 정신적 재생으로 그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삶에 본질인 주체성을 자각한다.

그동안 헨더슨의 정신적 재생과정은 동물을 매개체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 그는 돼지를 기르며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내면의 무질서한 정신 상태를 나타냈다. 또한 아프리카 아르네위족에 저수지 속 개구리에게서 그의 문제를 투영시켜 충동적인 자기 현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와리리족에서 사자 훈련을 통해 인간 영혼의 재생은 부조리한 상황에서 일어남을 깨닫고 현실의 충고함을 지각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거 형제애를 느꼈던 곰과의 추억을 통해 그의 내면에는 인간성 재생을 위한 핵심인 타인을 향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헨더슨은 정신적 재생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던 모든면에서 안정된 ‘존재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모순들로 가득찬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그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며 계속 발전하는 ‘변해가는 자’이다.

54) Singh, "The Political Satire in *Henderson the Rain King*," p. 36.

그러나 현재를 긍정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믿는 원숙한 인간성의 소유자로 변화하고 있기에 그는 이미 완성된 ‘존재하는 자’의 삶보다 더 큰 가능성의 화신으로 거듭난다. 헨더슨이 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잠시 착륙한 뉴펀들랜드라는 지명이 ‘새롭게 발견된 곳’을 의미하듯이 그는 자신이 이룬 정신적 재생이 인간성 회복의 핵심임을 확인한다. 그는 인생의 활기와 용기를 갖고 인간애를 바탕으로 안정된 인생을 시작하려는 시작점에 서있다. 헨더슨의 아프리카 여행은 “영적 굶주림의 자기중심적 이야기(egocentric story of spiritual hunger)”⁵⁵⁾로 시작해 “사랑이 할 수 있는 것(what love can do)”⁵⁶⁾을 깨닫고 정신적 재생을 이루며 대장정을 마친다.

55) Malcolm Bradbury, *Saul Bellow* (London and New York: Methuen, 1982), p. 59.

56) Rhea, p. 48.

V. 결 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하나, 정신적으로 공허한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자발적으로 소외를 선택한 현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원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고통은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보이지만 여전히 세대를 뛰어넘어 반복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솔 벨로우는 그의 작품에서 현대인이 지닌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특히 벨로우는 그의 다섯 번째 작품인 『비의 왕 헨더슨』으로 주인공 헨더슨의 문제를 개인에게 국한 시키지 않고 인간 전체가 겪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한다.

문학작품의 주인공은 주로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닌 성장하고 변해가는 존재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참다운 인간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인 헨더슨 역시 변해가는 존재로 내적으로는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자아의 외침인 ‘나는 원한다’에 고통받으며, 외적으로는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생존자의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다. 그는 백만장자이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올랐지만,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새로움을 갈망한다. 그는 쾌락의 상징인 돼지를 기르며 자아의 외침을 잠재우려 하지만 그의 내면이 요구하는 것은 육체적 욕망 그 너머에 있다. 인생의 경험이 진실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이며,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지만, 헨더슨은 이성이 아닌 육체적 감각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헨더슨은 불확실성과 실존의 불안에 대한 저항으로 아프리카 오지로의 정신적 여행을 떠난다.

헨더슨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만난 두 부족에게서 극명하게 나뉘는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체험한다. 그는 아르네위족의 윌라테일 여왕에게 ‘그룬 투 몰라니’ 즉, 인간은 살기를 원한다라는 인생의 지혜를 얻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찾아간 아르네위족에게서 그는 삶의 열정을 발견하고, 백내장으로 시각을 상실한 여왕에게 자신의 내부를 간파당한다. 그러나 여왕 또한 현실을 정

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헨더슨은 인간의 사랑과 평화를 일깨워준 아르네위족에게 보답하기 위해 희비극적 행동으로 부족을 도우려 하지만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헨더슨의 인간성 회복의 과정은 투쟁적인 인간본성의 세계로 상징되는 와리리족에서 계속된다. 헨더슨은 와리리족의 음모에 빠져 비의 왕인 ‘성고’가 되어 새로운 운명을 맞이한다. 그는 다푸 왕의 도움으로 사자의 정기를 흡수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미 원숙한 인간인 ‘존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푸 왕은 가르침 즉, 최신의 과학기술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상상력과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인간성을 상실시켰다는 헨더슨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나 헨더슨은 죽음앞에 당당한 다푸 왕의 모습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으며 죽음 앞에서 인간은 희망과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는다. 이제 헨더슨 자아의 외침은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변하며, 그는 타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 회복을 시도한다. 결국 벨로우가 헨더슨의 인간성 회복의 과정을 통해 의도한 것은 소외된 개인과 사회와 화해이다. 헨더슨은 아프리카에서 자아성찰과 인간성 회복의 과정을 통해 그가 속했던 사회로 회귀함으로써 현실을 수용하게 되고 인간존재의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관계의 중요성을 각성하게 된다.

헨더슨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페르시아에서 자라나 영어를 못하는 미국인 고아에게서 무한한 사랑을 느낀다. 그의 새로운 인류에 대한 사랑은 그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정신적 재생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선과 악으로 단순히 구별 지을 수 없고 이것은 단지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자연의 섭리이기에 헨더슨의 무한한 삶에 대한 욕망은 그릇된 욕망일 뿐이었음을 깨닫는다. 그가 탄 비행기가 급유를 위해 잠시 착륙한 곳인 뉴펀들랜드라는 지명이 의미하듯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민의 서사인 동시에 일종의 홈커밍이며 미국이라는 신대륙의 발견이 재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미국인으로 대표되는 헨더슨 개인의 정신적 재생인 동시에, 새 인류를 위한 타락한 미국의 재발견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벨로우는 현대인으로 상징되는 헨더슨의 모험을 통해 인생의 불안과 비관에 좌절하기보다 자기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생존투쟁과 정신적 재생의 과정을 묘

사한다. 인간은 소외되고 고립된 모습이 아니라 사회와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실존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벨로우는 현대인이 이미 완성된 ‘존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변해가는 자’의 과정에서 의미를 찾으며 삶을 긍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한다. 또한 그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존재의 위대함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현대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조리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인간성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으며, 삶은 풍부해지고, 인류에 대한 사랑은 넘쳐나게 되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역설해 본다.

참 고 문 헌

I . Primary Source

Bellow, Saul. *Henderson the Rain King*. New York: Penguin Books, 1976.

II . Secondary Sources

강창동. 『교육사회학의 이해』 2판. 서울: (주)학지사, 2015.

김성곤. 『현대 미국문학』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94. 서울: 민음사, 1997.

송창호. 「『우왕 헨더슨』 : 삶과 죽음의 수난을 통한 자아인식」. 『영미어문학』 제97호 (2010. 12): 1-19.

신명희 외 8인. 『교육심리학』 3판. 서울: (주)학지사, 2016.

안무승. 『솔 벨로우 소설 연구』. 서울: 푸른사상사, 2004.

_____. 「희극적 모험을 통한 인간애의 발견-『우왕 헨더슨』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문집』 31 (2001): 73-90.

조보경. 「Saul Bellow의 “*Henderson the Rain King*” 연구: 고통 극복을 통한 삶의 의미 회복」.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7.

조용배. 「『우왕 헨더슨』: 죽음과 재생의 여행」. 『인문학연구』 26 (2001): 95-110.

조일현. 「『비의 왕 헨더슨』: 죽음과 재생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강원영문학회』 19.2 (2000): 165-186.

최말순. 「『우왕 헨더슨』에서 인간성 회복」. 『신영어영문학』 31집 (2005. 8): 115-136.

Bradbury, Malcolm. *Saul Bellow*. London and New York: Methuen, 1982.

Chavkin, A & Chavkin, N. F. “Family Dynamics in *Henderson the Rain King*.” *Saul Bellow Journal* 24.2 (2011): 15-25.

- Clayton, John. *Saul Bellow: In Defense of Man*. Bloomington & London: Indiana UP, 1979.
- Dutton, Robert R. *Saul Bellow*. Boston: Twayne Publishers, 1982.
- Fiedler, Leslie. *Waiting for the End*. New York: Madison Books, 1964.
- Galloway, David. *The Absurd Hero in American Fic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 Gowrie, Grey. "Retelling it how it was: Bellow: A Biography by James Atlas." *The Spectator* 16.23 (2000): 85-86.
- Karl, Frederick R. *American Fictions 1940-1980*. New York: Harper & Row, 1983.
- Kirsch, A. "On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59.19 (2012): 54-56.
- Kazin, Alfred. *Bright Book of Lif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 Malin, Irving. *Saul Bellow's Fiction*.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P, 1969.
- Markos, Donald W. "Life Against Death in *Henderson the Rain King*." *Modern Fiction Studies* 17.2 (1971): 193-205.
- Pearce, Richard. *The Ambiguous Assault Henderson and Herzog, Saul Bellow;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5.
- Quayum, M A. "Transcendentalism and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Studies in American Jewish Literature* 14 (1995): 46-57.
- Rhea, T. "Metaphysics of Fear in Saul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Saul Bellow Journal* 22.1-2 (2006): 39-50.
- Robinson, Robert. "Saul Bellow at Sixty Talking to Robert Robinson." *The Listener* 93 (Feb., 1975): 218-219.
- Rodrigues, Eusebio L. "Bellow's Africa." *American Literature* 43.2 (1971): 476-490.
- _____. *Quest for the Human: An Exploration of Saul Bellow's Fiction*. Lewisburg: Bucknell UP, 1981.

- Sieburth, Renée. “*Henderson the Rain King*: A 20th-century *Don Quixote*?” *Canadian Review of Comparative Literature* 5.1 (1978): 87-94.
- Singh, Sukhbir.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Explicator* 50.2 (1992): 118-120.
- _____. “The Political Satire in *Henderson the Rain King*.” *Saul Bellow Journal* 18.2 (2002): 23-39.
- Strand, Eric. “Postwar Revisions of Cultural Anthropology and Jewish American Identity in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Lighting Out for the Global Territory* 80.1 (2013): 288-316.
- Watson, Tim. ““Every Guy Has His Own Africa” : Postwar Anthropology in Saul Bellow’s *Henderson the Rain King*.” *A Forum on Fiction* 46.2 (2013): 275-295.
- The Official Web Site of the Nobel Prize. “Saul Bellow-Nobel Lecture.” Accessed April 1, 2017. http://nobelprize.org/nobel_prizes/literature/laureates/1976/bellow-lecture.
- Wikipedia. “The Over Soul”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Accessed April 1, 2017. https://en.wikipedia.org/wiki/The_Over-Soul

<Abstract>

The Process of Henderson's Self-renewal and Recovery of
Humanity in *Henderson the Rain King*

Kim, Bo Ra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Min*

Saul Bellow(1915-2005), a Jewish American writer, challenges his protagonists in his novels to answer the basic question, the meaning of their existence in the absurd society. Henderson in *Henderson the Rain King*(1959) is portrayed as an active and positive character who is convinced of great human potential. Henderson, a representative of modern man, resolves spiritual chaos through the journey to Afric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Henderson's spiritual journey to Africa and to discuss implications for the recovery of humanity based on true self-renewal and humanity.

Henderson in *Henderson the Rain King*, is suffering from the essential problems of existence despite his high social status and background of being a millionaire. His pain is due to a fear of death originated from the egocentric inner voice 'I want' and the 'guilt of the survivor'. He begins his journey to Africa, represented by the metaphysical destination, to solve his problems. In Africa he visits two tribes, the Arnewi and then the Wariri and experiences two aspects of the human condition: life and death. From the Arnewi, Henderson learns the great human desire to live as 'Grun-tu-molani' from the peaceful

and gentle Queen Willatale. Their positive view of life, however, causes a discrepancy in true human life. It is not enough to solve Henderson's problem. He needs more clear wisdom of life, and therefore his spiritual journey continues in the second tribe, the Wariri.

From the Wariri, who pioneer their destiny, Henderson acquires the will and the sense of accomplishment of human survival. Although Henderson achieves spiritual regeneration through the teachings of King Dahfu of the Wariri, King Dahfu faces death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the tribe. Henderson acknowledges the finitude of humanity and overcomes the fear of death through the preciousness of never dying even before the death of King Dahfu. The true recovery of humanity he has achieved is based on the love and imagination of human beings. He rejects selfishness and embraces reality through humanity based on understanding others. Henderson returns to his community of family and children in order to realize the meaning of life and practice it through inner growth experience.

What Bellow tells us through Henderson's journey is that humans can restore true humanity by acknowledging their limitations and reaching a compromise with their societies. The desirable humanity can be achieved through self-development and understanding others. His valuable lesson is that the process of 'becoming' is a more significant factor than 'being' in life.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7.